

하 바 드 大 學

金 容 德

(서울大 東洋史學科 助教授)

- ◇ 이 글은 編輯室의 요청에 따라 美國 하 ◇
- ◇ 바드大學에서 보내 온 紹介資料를 참고로, ◇
- ◇ 同大學에 修學하여 碩·博士學位를 取得 ◇
- ◇ 한 서울大學校 金容德教授가 써 주셨습니 ◇
- ◇ 다. 이 자리를 빌어 좋은 資料를 보내 주 ◇
- ◇ 신 Derek Bok 總長님께 깊은 謝意를 드립 ◇
- ◇ 니다. <編輯者 註> ◇

I. 概 要

- ◎ 名稱 : Harvard University
- ◎ 位置 : Cambridge, Massachusetts
- ◎ 沿革 : 1636년 매사추세츠주 행정부의 의결을 거쳐 사립교육기관으로 발족. 1638년 도서와 기금을 기증한 존 하바드(John Harvard)의 이름을 따 하바드대학교로 부르게 됨. 1894년 레드클리프(Radcliffe)여자대학의 교육을 담당. 현재 학부와 10개 대학원에 교수 2,323명, 학생 16,000명. 기금(endowment)은 20억 달러를 상회.
- ◎ 管理 : 전반적인 업무는 7인으로 구성된 하바

드운영위원회(Harvard Corporation)에서 취급하며 이와 병행하여 주로 동창들이 뽑은 30명의 理事들이 理事會(Board of Overseers)를 구성, 운영위원회를 감독하고 자문에 응함. 그러나 학부 및 각 대학원은 재정, 교육 등 실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

II. 略 史

美國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이며 대통령 여섯을 포함,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하바드대학교는 淸教徒들이 처음 플리머스(Plymouth)바닷가에 도착한 뒤 16년만인 1636년, 교수 한 사람과 학생 12명으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의 어려운 사정을 구한 것은 존 하바드 목사였다. 1638년 젊은 나이에 죽은 그는 개인 소장 도서와 재산을 기증함으로써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이다.

초창기의 교육방침은 英國 大學式의 古典人文學 중심에,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 온 청교도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를 영원한 번영에 이르도록 하고…… 무식한 목사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教育目標였다. 그러나 1708년 존 레버렛(John Leverett)이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 하바드의 총장이 되면서 청교도이념에 구

속박지 않는 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로부터 여러 부문으로 敎科目이 넓혀져 수많은 과학자, 교수, 지도자들이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869년부터 40년간 總長職에 있었던 찰스 엘리엇(Charles W. Eliot)은 오늘날 하바드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겠다. 법과, 의과대학이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文理學대학원은 물론 경영학·치의학대학원이 신설된 것이 모두 그의 업적이었다. 또한 그의 재임기간중 학생수는 1,000명에서 3,000명으로, 교수는 49명에서 278명으로, 기금은 2백 30만 달러로부터 그 10배로 늘었다.

그 뒤를 이어 로렌스 로웰(A. Lawrence Lowell)이 총장에 취임하자 곧 학부생들의 專攻制를 추진하고 이를 더욱 효과있게 하기 위하여 학생개별지도방법(tutorial system)을 도입하였다. 로웰의 업적으로 특기할 것은 學寮(House)制를 신설한 것이었다. 이는 종합대학교적인 분위기에서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학부생들에게 그들이 신청한 學寮에 들어가 같이 숙식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통용되는 이 學寮制에 따르면, 우선 1학년생은 하바드본부건물 근처의 기숙사에 머물다가 2학년부턴 3년 동안은 學寮에 들어가 생활한다. 13개의 學寮는(12개의 기숙사를 결합 학료와 통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하나의 학료) 단과대학처럼 전공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학료의 전통에 따라—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기는 하다—학생들은 자기가 갈 곳을 신청한 뒤 매정을 받는다. 학료에는 반드시 學寮長의 가족이 모범적으로 같이 기거하며, 또한 학생들의 공부와 일상생활을 직접 도와주는 교수급에서 대학원생에까지의 여러 선생(tutor)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 학료마다 도서관이 있는 것은 물론 체육·문화·사회활동도 대개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생들의 증명서에는 學寮名이 적혀 있고 학생처별도 대개 학료에서 학생대표와 학료선생들이 상의하여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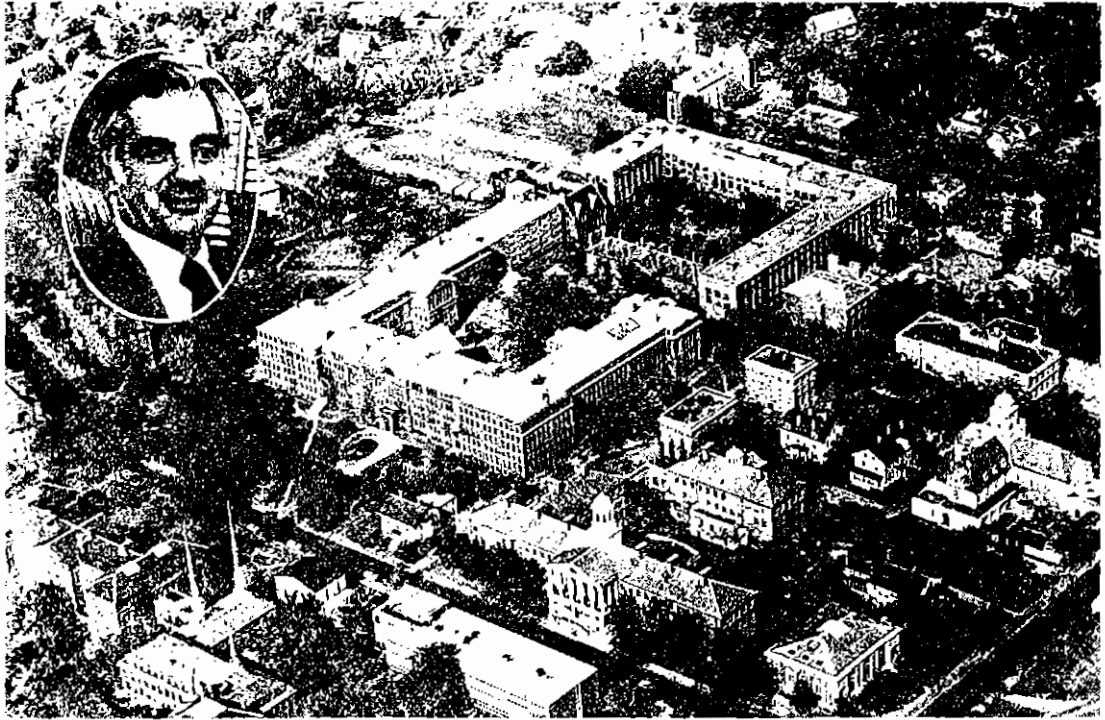
1933년 이후 제임스 코난트(James B. Conant), 네이산 푸지(Nathan M. Pusey) 그리고 현재의

총장 데릭 벅(Derek Bok) 등은 이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육과 연구의 質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왔다. 특히 20년간 재직할 코난트 총장은 학부생들이 좁은 전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敎養科目制度를 확충하였으며 교수채용에 관한 심사를 외부에 위촉하여 公正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푸이어 푸지 총장은 대규모 기금모집 사업을 벌여 18년간의 在任期間中 8,250만 달러를 모았으며 이로써 현재의 하바드대학교 시설도 마련되었다. 1971년, 40세 초반의 젊은 나이로 취임한 벅 총장은 하바드가 오늘날 해야 할 일, 그리고 실정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등에 진력하고 있다. 產學協同, 여자 및 소수인종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대학과 정부방침과의 조화 등이 그의 주관심으로 알력지고 있으며 학교운영도 現代經營方式로 개선하고 있다.

하나 附言할 것은 레드클리프여자대학과의 관계이다. 1879년에 창립된 이 대학은 1894년부터 하바드에서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하바드 교수들이 레드클리프에 出講하는 형식으로 1943년까지 운영되다가 이후로는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하바드 학료와 같이 들어와 사실상 통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레드클리프의 學長이 따로 있고, 하바드에서 주는 학위를 받으면서도 졸업장에는 레드클리프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러한 명목적인 것 외에 레드클리프에서는 학부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몇 개의—주로 女性關係—연구소들을 관장하고 있기도 하다.

Ⅲ. 現 況

종합대학교로서의 하바드의 중심은 학부(Harvard College)와 文理學大學院(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을 합친 Faculty of Arts and Sciences에 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에산을 쓰고 있음은 물론이다. 9개의 특수대학원—경영(Business Administration)대학원·치과(Dental Medicine)대학원·환경건축(Design)대학원·신학(Divinity)대학원·교육(Education)대학원·케네디행정대학원(Kennedy School of



Government) · 법학(Law)대학원 · 의과(Medical) 대학원 · 보건(Public Health)대학원—그리고 여름학과와 정규 하바드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University Extension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특수대학원들은 대부분 우리 나라에서는 학부인 것이 모두 대학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야가 다른 여러 교육기관들과 연구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醫學系를 제외하고는 대개 하바드광장(본부건물, 중앙도서관, 교회, 1학년 기숙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보 15분이내의 지역에 산재해 있다. 담이 있는 것은 하바드광장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길에 그대로 면해 있다. 말하자면 케임브리지 중심지역이 모두 하바드 캠퍼스라고 할 만한 것이다. 醫學系는 그 성격상 여러 부속병원들이 같이 물려 있는 보스턴 중심지에 있다. 특이한 것으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에 약 7,000 에이커 가량의 연습림이 있고, 비잔틴연구소는 워싱턴에 있으며, 르네상스연구소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현지에 떨어져 있다.

敎育 · 研究 · 應用이 오늘날의 대학의 기능인

것에 맞춰, 하바드에는 분야에 따라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枚擧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이곳에서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바드에서 가장 내세울 것은 圖書館施設이라 하겠다. 중앙도서관인 와이드너(Widener)도서관 외에 각 대학원, 학과, 연구소, 학과마다 따로 도서관이 있어 전체 소장도서는 1천만권에 이르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大學圖書館으로는 세계 제일이다. 특수한 도서관으로는 학부생교육을 위한 라몬트(Lamont)와 힐리스(Hilles)도서관, 희귀본과 친필원고를 보관하고 있는 호우톤(Houghton)도서관이 있고, 수년 전에 완공된 퓨지(Pusey)도서관은 지하도서관으로는 유일한 것으로서 하바드 문서 및 특별문고들을 보관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방법 또한 閱覽者爲主로 편리하게 되어 있다. 모든 도서관이 開架式이어서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뽑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도서관에는 綜合圖書目錄이 있어 이탈리아에 있는 르네상스연구소 책이라도 신청하여 볼 수가 있다. 또한 학생이나 교수에게 필요한 책은 다 구비하고 있다는 하바드도서관의 자부심 때문에 원하

는 책이 없다고만 하면 대개는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놓기도 한다. 도서관 利用時間은 보통 10시까지이나 몇몇 도서관은 새벽 1시까지 열려 있어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교수들을 위한 것으로 한 가지 부러운 것은 도서관 내에 작은 면적이긴 하지만 외부와 차단된—전화연락도 불가능한—研究室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몇 달간 집중해서 연구해야 할 교수들은 이곳에 파묻혀 시간을 100%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시설로 특기할 만한 것은 식물, 동물, 광물, 고고인류학 각 분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는 대규모 대학박물관(University Museum), 동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美術品을 소장하고 있는 포그미술관(Fogg Art Museum), 7천종 가 가까운 식물을 키우고 있는 아놀드식물원(Arnold Arboretum), 연극전용의 로옴(Loeb)극장, 그리고 週 1~2회 끊이지 않고 음악회가 열리는 샌더스(Sanders)관 등이 있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오락시설이 屋内外로 13군데에 있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적절히 이용하여 하바드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빈틈없이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 학과공부만 해도, 한 학기에 4과목—週 3시간 기준—정도여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으나, 한 과목당 한 학기에 반드시 읽어야 할 분량이 10~15책 가량되고 자기가 택한 제목으로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덧붙일 것은 같은 케임브릿지 시내에 있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서로 交換受講(cross-registratio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의 두 대학교가 그 시설과 교육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學期末試驗은 3시간에 걸쳐 얇은 노트 한 권을 채워야 할 만큼 전반적인 능력을 테스트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거의 매주 助教가 이끄는 토론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週중에는 전혀 틈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부터는「일주일을 벌고 없이 지냈구나」하는 해방감 때문에 학교가 자못 시끄러워지는 것이다.

능력 있는 학생들은 힘든 학과공부의 틈을 이용하여 하바드 크림슨(Harvard Crimson)이란 日刊紙를 위시하여 각종 週刊紙 및 雜誌를 내고,

연극·합창·교향악단·운동팀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수준급인 것을 보면 하바드 학생들의 性向이 학과공부 일변도가 아니라 자기의 개성에 맞는 방향을 택해 몰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바드의 入學基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학과성적만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우리와는 달리 그 학생의 특출한 능력과 잠재성, 지도력 그리고 가정환경 까지도 많이 참작하는 것이다. 물론 학과성적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면 個性을 존중해서 키워 주는 것을 대학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다.

大學生의 경우에는 당장 써야 할 레포트나 논문 때문에 사실 학부생들만큼 다채로운 생활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연구소를 중심으로 항상 열리고 있는 학술발표회나 세미나를 통해 學問的 刺戟을 언젠가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계각지에서 찾아온 一流學者들의 발표를 듣고 같이 토론하는 것은 좁은 분야에 묻혀 왜소해지기 쉬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하바드 교수들의 수준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히 세계적이라 하겠다. 어느 면에서는 하바드의 霧圍氣가 세계적인 학자를 만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27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0명의 풀리처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그 수준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바드 교수가 중심이 된 연구팀들이 밤낮없이 좋은 시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조교수 이상의 專任教授數는 2,323명으로 학생수 16,000명과의 比는 1대 7 정도이다. 이 중 학부생은 전체가 6,510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1천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대학원은 文理學, 法學, 經營學大學院 등이다. 학비는 1982학년도 학부생을 기준으로, 수업료 8,195달러, 기숙사비 2,055달러, 식비 1,850달러(合計 12,100달러)이어서 꽤 넉넉한 집이 아니면 미국에서도 보내기 어렵다. 그러나 혜택도 그만큼 많아 1981학년도에 장학금(학내외)으로 3천 4백만 달러, 매여장학금 3천 6백만 달러, 봉사장학금 1천 3백만 달러 가량 지출되었다. 아무래도 혜택은 어려운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돌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사이 “하바드에는 상층 또는 하층 가정의 학생들만 들어가지 종류층 출신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학비가 이렇게 비싼 데에도 실제 학교 全體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보조(22%), 기금수입(19%), 기부금(16%), 기타(12%)로 충당되고 있다. 하바드가 있음으로써 케임브리지市가 연 1억 달러의 財政收入이 생긴다는 것을 보면 과연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Ⅳ. 새로운 敎養教育(Core Curriculum)

하바드에서는 학부생을 위한 교양교육 방침을 혁신, 1979학년도부터 4년간의 實驗期間을 거쳐 금년에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30여년간 관습적으로 운영해 온 교양교육이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초에 걸친 사회적 혼란—월남전 반대,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겪으면서 현실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에서 나왔다. 더욱이 “백년 전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공통의 知的 體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現代社會에서는 그것이 곤란해지고 있다. 자기의 전문영역 밖의 것을 배운다는 것, 그에 의해 전문을 달리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改革을 맡은 로소프스키교수는 지적하였다. 앞으로 美國社會를 이끌어 갈 지식인들이 새롭고 진실한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1974년부터 5년간의 심의를 거쳐 敎養科目을 ① 문학·예술, ② 역사, ③ 사회적·철학적 분석, ④ 과학·수학, ⑤ 외국의 언어·문화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누어 실험강의에 착수하였다. 첫째, 중요한 문학·예술상의 성과를 알고 동시에 어떻게 그 체험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批判的 眼目を 키우기 위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 새롭게 선정된 과목을 택하게 하고, 둘째 과거의 복잡한 상황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相互作用을 이해하고 나아가 역사적 전망을

갖고 현대세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사분야에서 한 과목 이상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세계 사회과학·철학의 중심개념 및 사상을 분명히 인식하여 현대 사회생활의 근본적 측면에 관한 分析能力을 갖추도록 이 분야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네째로, 과학·수학분야를 강조한 것은 자연과학 및 행동과학의 基本原理를 우리 주위의 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게 함과 동시에 數量的 思考方式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왔으며, 다섯째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가고 있는 20세기말의 현상을 폭 넓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非西洋地域도 포함된 외국의 문화·언어에서 한 과목 이상을 필수적으로 택하도록 지침을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文章技術의 훈련과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교양교육 개혁의 目標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식인의 基本要件을 구비하면서 자기의 전문분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Ⅴ. 맺음말

흔히 하바드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단일캠퍼스에서 師弟間에 다정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쌓아 온 잠재력과 다양성은 단기간의 滯留經驗으로는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 필자도 7년여 하바드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냈지만 그곳의 잠재력과 다양성 그리고 시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파악하고 이해하였는가 아쉬운 감이 있다.

하바드가 이름만이 아닌, 世界 學界를 선도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막대한 도서 및 연구시설, 이를 찾아오는 우수한 학생과 연구자들, 그리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벌이는 비인간적일 정도의 치열한 경쟁과 이러한 경쟁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一流學者들의 하바드 체류, 방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쉬지 않고—그러나 극히 신중하게—대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에 하바드는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